“팔만대장경 판각법 전승 체계 마련 필요”

해인사, 4월 9일 학술세미나 개최
역사·과학·예술·미래 가치 조망
전통각법 전승·활용 전략 모색

합천 해인사=성낙두 경남지사장

“팔만대장경 판각 기술은 고려시대 기술의 총체이자 예술성과 완성도를 겸비한 전통입니다. 해인사가 전통 판각법과 조판 기술, 장정 방식을 원형대로 계승·재현해 지속 가능한 전승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인사가 추진 중인 팔만대장경 복각 불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전통각법 기술의 전승과 미래 활용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9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팔만대장경, 그 찬란함’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팔만대장경은 선조들의 간절한 서원과 불심이 일심으로 빚어낸 결정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팔만대장경의 인류사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인사가 4월 9일 보경당에서 ‘판만대장경, 그 찬란함’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팔만대장경이 인류애게 주는 의미를 짚었다.

주지 혜일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팔만대장경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짚었다. 혜일 스님은 “우리 선조들이 전쟁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새긴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라며 “이 점에서 팔만대장경은 인간 정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세계사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팔만대장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신념, 공동체적 연대의 힘, 정신적 가치의 회복, 위기 속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며 “우리 또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새로운 ‘지혜의 대장경’을 써내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판각 사업의 실상을 분석한 연구와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발표가 이어졌다.

최연주 동의대 교수는 ‘경판에 새겨진 각수의 전승과 계승 발전’ 발표를 통해 팔만대장경 판각 사업이 고도의 조직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적 프로젝트였음을 밝혔다. 최 교수는 “해인사가 전통 판각법과 조판 기술, 장정 방식을 원형대로 계승·재현해 지속 가능한 전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헌 상명대 교수는 ‘팔만대장경의 찬란한 미래’를 주제로 기록유산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김 교수는 그간 팔만대장경의 번역·전산화 등은 상당 부분 이뤄졌으나, 문헌 속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추출하는 ‘지능형 탐색’ 차원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만대장경을 ‘지식정보 아카이브’이자 ‘헤리티지 IP’로 재개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대한 경전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보조적 역할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연구자가 이를 검증하며, 기관이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삼중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팔만대장경은 차세대 지식유산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신은제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상임연구원이 ‘팔만대장경 조성 당시 시대적 배경과 해인사의 역할’, 서정욱 충북대 교수가 ‘800여 년을 견딘 팔만대장경 판재의 과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용진 국민대 교수, 위광철 한서대 교수, 석혜영 경북대 강사, 조영훈 공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종합토론 후 참석자들은 해인사 장경도감 판각학교와 팔만대장경 DB 구축 사업 현장을 참관했다.

로터스월드·의령 연화사, 캄보디아 오지에 유치원 준공

‘리엡짜 초등학교 신축 프로젝트’
5년간 학교 재건…교육환경 개선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의령 연화사(주지 진성 스님)가 캄보디아 농촌 지역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건립을 지원했다.

로터스월드는 4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앙코르톰 지역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축된 유치원은 1개 동 2칸 규모로, 약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그동안 교실 부족과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122명의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와 의령 연화사는 4월 4일 캄보디아 시엠립주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준공식을 봉행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유치원 과정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시설 확충은 저연령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더한다.

리엡짜 초등학교는 진성 스님의 원력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이 이뤄진 곳이다. 과거 낡은 목조건물 한 동에 의존하던 학교는 비가 새는 등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진성 스님은 로터스월드와 협력해 학교 전면 재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후 2022년 교실 신축을 시작으로 놀이시설, 추가 교실, 도서관 건립이 순차적으로 이어졌고, 올해 유치원까지 완공되며 5년간 총 5개 동 10칸 규모의 교육시설이 구축됐다. 학교 측은 이러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학교명을 ‘리엡짜-진성 초등학교’로 변경하기도 했다.

준공식에서 학생 대표는 린 소완나는 “진성 스님이 만들어준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장소가 됐다”며 “열심히 공부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인 장경사 주지 정휴 스님과 총무 혜타 스님도 함께 해 체육용품과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비구니회 ‘청정승가 수행결사’ 3차 입재

4월 6일, 만불전서 입재식
평등·본각 스님 등 지도



여성 출재가 수행자들이 사찰과 일상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정진하는 결사가 다시 시작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4월 6일 만불전에서 ‘2026년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상반기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입재식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원로의장 일법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혜솔·혜욱 스님, 지도법사 평등 스님과 여성 재가 수행자 100여 명이 참석해 수행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사는 4년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전국비구니회 13대 집행부의 3년차 과정으로, 화엄·간화선 등 다양한 수행 체계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수행결사는 7월 20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내 삶과 마음공부, 그리고 선수행’을 주제로 지도법사 평등 스님(4월 6·20일, 6월 22일, 7월 20일), 전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5월 4·18일),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6월 8일, 7월 6일)이 강의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이 〈선요〉와 〈서장〉을 중심으로 간화선 이론과 실참을 지도할 예정이다.

회장 광용 스님은 “수행은 나를 보호하고 사회를 정화하며 타인을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행을 위해 마음을 낸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것일수록 체득하기 어려운데, 수행이 그렇다”며 “그래도 이곳에 모여 있다면 스님들과 도반들과 법이 함께하니 머리를 싹 비우고, 오로지 나와 타인을 위해 수행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팔공산서 인연을…‘나는 절로 동화사’

5월 9~10일, 영남 거주 20명
4월 20일까지 재단 홈피 신청

전 국민적인 관심과 뜨거운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는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구 동화사에서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5월 9~10일 1박 2일간 대구 동화사에서 ‘나는 절로, 동화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남권 거주자 및 연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진중한 만남과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동화사는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천년고찰이다. 통일약사여래대불을 비롯해 다수의 보물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행과 치유가 공존하는 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동화사의 청정한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인연의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화사는 마음을 쉬고 자신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수행의 공간”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 따뜻한 연등을 밝히는 달인 만큼 새로운 인연과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는 절로, 동화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종교에 상관없이 영남에 거주하고 있거나 영남과 깊은 인연이 있는 2030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4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

